

광주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논의 돌입

조선대, 비대위 체제 전환·전국 집단행동에 동참 전남대, 이번 주 비대위 참여·대응방안 설문조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할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고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1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5일 교수평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 150여명을 대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여부를 두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3분의2가 찬성해 최종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번 주 중 위원장을 선출하고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에 참여해 전국 단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비대위 참여 전인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조선대 의대 교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의대교수회도 같은 날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180여명 교수를 대상으로 이

번 주 중 문기로 했다. 이날 자리는 최근 의과대학장이 바뀌면서 그동안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공백 장기화 의대 증원에 반발, 전공의들의 무단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김애리 기자

조선대 관계자는 “비대위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대학 개별적 움직임에 대한 부담이 있어 전국 단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동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수들도 학생들이 유급 처리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

전남대 의과대학 재학생 732명 중 575명과 조선대 의대 재학생 727명 중 590명이 각각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에 양 대학은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일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지만,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어 향후 추가 연기 등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알려졌다. /김다이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9 해질 18:43 달돋이 12:01 달지름 02:38

광주	구름	1/16
목포	흐림	2/13
여수	구름	4/13
나주	구름	-1/15
완도	구름	3/15
구례	구름	0/16
강진	구름	1/15
해남	구름	0/15
장성	구름	-1/15
보성	구름	0/14
순천	구름	2/15
영광	구름	0/13
진도	구름	3/12
흑산도	구름	5/10
고흥	구름	1/14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50 나들이 떠나요
 빨래 50 밀린 빨래하세요
 세차 50 실내 청소도 함께
 운동 30 실내운동 하세요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0-2.5	0.5-1.5
남부 먼바다(북)	1.5-3.5	1.0-2.0
남부 먼바다(남)	1.5-3.5	1.0-2.0
남해 앞바다	1.0-2.0	0.5-1.5
남해 먼바다(서)	1.5-3.5	1.0-2.0
남해 먼바다(동)	2.0-4.0	1.0-2.0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3월19일(화)	(5/14)	(3/10)	(6/12)	(5/15)	(10/16)
20일(수)	(3/11)	(1/9)	(2/8)	(2/12)	(5/14)
21일(목)	(1/12)	(0/10)	(1/8)	(1/12)	(5/14)

▶날씨안내 : 국번없이131

‘모두의 오월 ...’ 제44주년 5·18행사위 출범식

내일 국립 5·18민주묘지서...44년만에 호남민족민주유가족協 참석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가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념행사 준비에 돌입한다.

17일 5·18행사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묘 앞에서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출범식은 박미경 상임행사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선언문 낭독, 5·18민주묘지 합동 헌화·분향, 참석자 발언, 44주년 전야행사 주제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는 호남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에 참석해 행사를 함께할 예정이다.

올해 슬로건은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올해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오월이 되자는 내용과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각종 위기를 뛰어넘을 힘이 되는 하나되는 오월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앞서 광주시와 5·18행사위는 지난달

22-29일 5·18기념행사 포어(슬로건)를 공모했다.

김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처음으로 호남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돼 5·18의 또 다른 의미로 새겨질 것”이라며 “5·18이 민주주의를 위한 대의를 실천하는 한편 이번 행사가 5·18 관련 단체들 간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재해 발생 학교 신속 복구”...市교육청, 1시간 이내 출동 보수

광주시교육청은 17일 “기상이변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학교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학교 시설물 긴급 복구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부터 공사 추진까지의 지연 시간을 줄이고 재해 복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긴급 복구 예산을 편성, 재해 피해 신고 접수 시 전문 업체가 1시간 이내에 출동해 즉각적인 보수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예산 확보부터 착공까지의

절차가 최소한 3-4주 소요돼 복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재난 안전사고 대응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김옥수 서구의원 ‘윤리특위’에 회부

‘의장단 선임 무효 소송’ 의회 명예 실추...“공익 목적” 반발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김옥수 서구의원이 징계 기로에 놓였다.

17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32회 임시회 중 김옥수 서구의원의 징계 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구의원들은 김 의원의 소송 제기 등 행동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국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또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으로 2천7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점도 회부 사유로 꼽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서구의회 의장이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선출된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 모두 김 의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잘못된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제기한 공익 목적의 소송이었다”며 “월인 제공과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에 따라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주성학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 | ONEstore